<특 집>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자원봉사 활동 후기 ①

열정으로 하나 되다.

박한아, 김재진, 배경미, 고혜진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kwowls@hanmail.net

목마름

조바심이 났다. 벌써 4학년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동안의 수많은 리포트와 토론의 끝은 '진정한 사서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무언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성', 4년간의 학부수업을 꼬박 꼬박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참되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논하기는 부끄러웠다. 우리는 이제서야 책 밖의 실제적인 도서관계의 경험에 목이 말라왔고 이번 전국도서관대회는 그러한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간절히 원하는 기회였다.

파란색 티셔츠

전국 여러 학교들에서 모인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파란 티셔츠를 똑같이 맞추어 입고 아자!를 외치며, 10월 10일 대회의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봉사에 돌입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각 회의장에서 진행되어질 세션에 대해 안내하고 발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세미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첫 세미나가 시작되고, 녹음 버튼 · 조명 버튼 누르는 것 하나에 행여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잔뜩 긴장이 되었다. 작은 일이었지만 우리가 도서관대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이 느껴졌다.

공통의 심장 실제 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서님들, 사서와 도서관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대체 가능토록 만드는 도서관 관련 산업 관계자 분들, 보다 나은 한국 도서관계를 꿈꾸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신 정책부서 담당자, 연구자분들.

방법은 다르지만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이라는 공통의 심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한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 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생각들과 입장이 논의 되는 자리였기에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러한 다양성과 갈등이 결국엔 도서관을 위한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꿈의 재정비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동안 참 많은 갈등을 했었다. 정말 내 길이 맞는지, 사서의 전문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지,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은 왜 이런지. 그러는 동안 우리의 꿈은 수 없이 흔들렸고 번민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서관을 향한 길을 걷고 있고 여기까지 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서관대회에 참가해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수많은 도서관인들의 열정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꿈은 다시 한 번 정비되고 구체화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공부하는 방법이나 분위기는 다를지 몰라도 모두의 말과 생각 속에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했다. 우리가 10년 뒤 또는 20년 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 변함없이 도서관을 사랑하고 문헌정보학을 향해 열정을 태우고 있으리라.

'풍경은 가장 마지막에 남는다' 는 황경신 작가의 글귀처럼 돌아와서 사진을 다시금 꺼내 보니 추억들이 새록새록 솟아오른다.

<특 집>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 자원봉사 활동 후기 ②

제주도, 그곳에서 특별한 5일의 기록

김 연 희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kyh860220@hanmail.net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난 꼭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전에 봉사활동을 하던 곳에서 저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과 다른 환경이기에 더욱 많은 도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 1학년일 때 가지게 된 그 생각은 막연한 꿈일 뿐이었다. 그러다 듣게 된 독서치료 세미나는 막연했던 나의 꿈에 구체적인 뼈대를 세워주었다. 나의 미래를 구체화 시켜준 독서치료를 접한 곳은 2004년 부산에서 열린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견학이라는 말에 좋아서 따라간 1학년 새내기의 눈에 그 넓은 부산 BEXCO에서 열린 도서관대회는 신기하고 화려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전시부스들은 정신없었고 당시 자원봉사를 하셨던 선배들의 모습도 멋있어 보이기만 했다.

학교 과제와 아르바이트에 치이는 시간이 흘러 4학년 2학기가 되고, 취업에 대한 고민에 매일같이 사서 관련 사이트를 들락거리다 본 제44회 도서관대회 자원봉사. 순간 부산에서 빨간 조끼를 입으시고 활동하시던 선배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다른 조건은 보지도 않고 바로 신청했다. 그리고 9월 3일 최종명단이 발표되고 그 명단에 내 이름을 확인한 뒤부터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드디어 10월 7일. 흐린 날씨 때문에 급강하와 흔들거림을 반복하는 비행기를 타고 겨우 숙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도서관협회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보니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 이상으로 더욱 재밌어 질 것 같았다.

10월 8일은 컨벤션 센터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행사 기간 동안 준비해야할 일들이나, 주의사항, 자신이 맡은 일들을 확인하고 행사가 이루어질 곳을 미리 둘러보았다. ICC 건물의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쓰는데 어쩜 그리도 넓고 복잡한지 어디가 어딘지 몰라 계속 헤맸다. 이렇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방 안에 준비된 자료들을 넣는 일을 했다. 1,200개의 가방을 싸는데 어느 순간 착착 단합된 힘을 보여주면서 겨우 50여

분 만에 일을 끝내버렸다. 그 작업현장은 가히 생활의 달인을 생각나게 했었다. 9일에는 명찰을 만들고 그 명찰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역시 다들 초스피드로 일을 끝내버렸다. 일하는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자신의 할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다른 일을 찾아가는 우리 보고 농담처럼 마치 일에 굶주린 사람들 같았다고 한다. 행사 날은 일찍 일어났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당장 다음날이 행사라는 긴장감과 설렘에 뒤척이다 잠들게 되었다.

드디어 10월 10일 행사 당일! 7일 출발하던 날부터 비 오면서 흐렸던 날씨도 어찌나 맑고 화창하던지 오히려 그 전날 까지 오던 비 때문에 하늘은 더욱 파랗고 바다도 더욱 깨끗해 보였다. 성공적인 도서관대회의 개막을 축하하는 하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다들 자신의 자리로 가고 나도 내가 맡은 1층의 도서관 정보화 전시회장 입구로 향했다. 여러 업체들이 바쁘게 부스에서 준비하고 계셨다. 도서관에 필요한 기계나 프로그램 업체 뿐 아니라 점자도서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도 함께 전시되어 보는 재미를 더했다. 또 인터넷 카페와 포스터 세션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나 둘 씩 늘어가던 사람들은 본격적인 개막식이 시작되고 급속도로 늘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을 대하다보니 조금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내 목에 걸린 명찰을 보고 "경기대학교 학생이네."라며 아는 척도 해주시고 수고한다, 고생한다는 말들을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끝까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다. 후에 안에 계시던 업체 관계자분들은 전시장 입구 지키던 학생이라고 아는 척도 해주시면서 홍보를 위해 가져오신 선물들도 안겨주셨다.

11일은 전시회장에서 벗어나 다른 세미나실 자원봉사자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둘러볼 수 있었다. 발표자, 진행자 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이 밀려들었다. 학교에서 배운 책의 저자 분들도 뵙고 평소 관심 있던 내용의 세미나 자료집들도 부탁해서 하나씩 받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에 행복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대회의 또 하루가 지나갔다. 마지막 날은 개인별로 도서관 탐방을 하는 날이었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마지막이라는 서운함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제주도를 그리워지게 하고 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잘해주신 도서관협회 분들과 일 앞에서 모두 하나되었던 자원봉사자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학기 중 수업 결손을 허락해주시고 오히려 격려해주신 교수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 이번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로 인해 제주도는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